

제 4 교시

사회탐구 영역(윤리와 사상)

성명		수험번호					3			제 ( ) 선택
----	--	------	--	--	--	--	---	--	--	----------

윤리와 사상

1. 다음 가상 편지를 쓴 고대 동양 사상가가 강조한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○○에게

오늘은 관직을 수행하려는 자네에게 조언을 하려 하네. 천하란 신묘하여 인위로는 다스릴 수 없다네. 인위로 다스리는 자는 천하를 망치고 인위에 집착하는 자는 천하를 잃게 되네. 그래서 성인(聖人)은 “내가 무위(無爲)하므로 백성이 저절로 선하게 되고 내가 일을 벌여 놓지 않으므로 백성이 저절로 부유하게 된다.”라고 말했다네.

- ① 일체의 번거가 소멸된 이상적 경지[涅槃]로 중생을 인도한다.
- ② 문명의 이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천하의 이익을 도모한다.
- ③ 어떤 일이든 왜곡이나 조작 없이 자연의 순리에 따라 처리한다.
- ④ 성현이 제정한 예(禮)를 익혀 자신의 타고난 성품을 교정한다.
- ⑤ 감각적 경험에 근거하여 사물을 인식하고 선과 악을 분별한다.

2.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?

하늘[天]이 준 벼슬이 있고 사람이 주는 벼슬이 있다. 인의충신(仁義忠信)은 하늘이 준 벼슬이다. 공(公), 경(卿), 대부(大夫)는 사람이 주는 벼슬이다. 사람이 주는 벼슬을 얻고 하늘이 준 벼슬을 팽개치면, 사람이 주는 벼슬도 잃게 된다.

- ① 인의보다는 상벌로써 다스릴 때 왕도(王道)가 실현된다.
- ② 의로운 일을 반복함으로써 양지와 양능을 형성해야 한다.
- ③ 대인과 소인은 모두 남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타고난다.
- ④ 군주는 천명(天命)을 부여받은 존재이므로 교체될 수 없다.
- ⑤ 일반 백성은 향산(恒産) 없이 향심(恒心)을 유지할 수 있다.

3. (가)를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, (나)의 ㉠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(가)	국가의 구성원은 통치자, 방위자, 생산자 세 계층으로 나뉜다. 이들은 타고난 성향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한 가지 일을 담당하며 다른 계층의 일에 참견하지 않고, 모두 절제를 갖추어 서로 반목하지 않는다.
(나)	학생: 이상 사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? 교사: _____ ㉠

- ① 구성원의 합의로 만들어진 선의 이데아에 따라 통치됩니다.
- ② 구성원은 자유롭게 자신의 계층과 직업을 고를 수 있습니다.
- ③ 각 계층은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재산을 공유합니다.
- ④ 각 계층은 자신의 덕을 발휘하며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.
- ⑤ 통치자의 정치권력으로부터 철학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.

4. 다음을 주장한 현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 [3점]

삶이란 인간과 환경의 조화가 깨지고 다시 회복되는 리듬으로 이루어진다. 인간이 저항과 갈등을 극복하여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갈 때 삶은 성장한다. 성장 자체가 도덕의 유일한 목적이다.

< 보 기 >

ㄱ. 지식의 오류 가능성을 부정하고 지성을 발휘해야 한다.  
 ㄴ. 도덕은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.  
 ㄷ. 실제적으로 유용한 결과를 산출하는 지식은 가치를 갖는다.  
 ㄹ. 인간이 성장하는 데 기여한 이론은 영원불변의 진리가 된다.

- ① ㄱ, ㄴ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ㄴ, ㄷ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③ ㄷ, ㄹ
- ④ ㄱ, ㄴ, ㄹ 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⑤ ㄱ, ㄷ, ㄹ

5. (가)의 서양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을 (나)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, A ~ 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 [3점]

(가) 갑: 쾌락은 모든 행위의 목적이다. 진정한 쾌락이란 방탕한 자들의 쾌락이 아니라 몸의 고통이 없고 마음의 동요가 없는 상태이다.  
 을: 쾌락은 질적 차이가 있다. 두 종류 쾌락을 모두 경험한 사람들이 도덕적 의무와 무관하게 뚜렷이 선호하는 쾌락이 더 바람직하다.

(나)

```

    graph TD
        Start[사상가 갑,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.] --> A{A}
        A -- 예 --> B{B}
        B -- 예 --> G[갑의 입장]
        A -- 아니요 --> C{C}
        C -- 예 --> E[을의 입장]
    
```

< 범 례 >

- : 출발 조건
- ◇: 판단 내용
- ⋯: 판단 방향
- ▭: 사상가의 입장

< 보 기 >

ㄱ. A: 개인의 쾌락보다 사회 전체의 쾌락을 추구해야 하는가?  
 ㄴ. B: 진정한 쾌락은 사려 깊은 삶을 살 때 누릴 수 있는가?  
 ㄷ. B: 평정심에 이르기 위해 공적인 활동을 멀리해야 하는가?  
 ㄹ. C: 지적 쾌락은 단순한 감각적 쾌락보다 더 가치가 있는가?

- ① ㄱ, ㄴ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ㄱ, ㄷ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③ ㄷ, ㄹ
- ④ ㄱ, ㄴ, ㄹ 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⑤ ㄴ, ㄷ, ㄹ

6. 한국 불교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? [3점]

갑: 진여문은 더러움과 깨끗함이 통한 모습이고 생멸문은 더러움과 깨끗함이 별도로 드러난 모습이다. 두 문[二門]은 다르지만 서로 배척하는 것이 없고,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. 이를 곧 일심(一心)이라 한다.  
 을: 돈오와 점수의 두 문은 모든 성인(聖人)이 밟아 온 길이다. 과거의 성인도 먼저 깨달은 뒤에 닦았고, 그 닦음에 의해 증득(證得)하지 않음이 없었다. 해탈은 깨달음에 의지해서 닦고 익혀야 도달할 수 있다.

- ① 갑: 모든 존재와 현상은 마음[心]이 만들어 내는 것이다.
- ② 갑: 각 종파의 이론을 하나인 근원에 따라 회통해야 한다.
- ③ 을: 돈오는 습기(習氣)가 쌓여 있는 상태에서도 가능하다.
- ④ 을: 깨달음의 완성을 위한 수행에 경전 공부는 필요하지 않다.
- ⑤ 갑과 을: 자신을 위한 수행과 중생 구제는 결국 다르지 않다.

7. 근대 서양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<보기>에서 고른 것은? [3점]

갑: 행위의 도덕성은 행위의 결과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행위가 일어나는 데 있지 않고, 오직 의무로부터, 즉 도덕 법칙을 위해서만 행위가 일어나는 데 있다.  
 을: 행위와 품성이 유덕하다거나 악덕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행위와 품성을 바라볼 때 특별한 종류의 쾌락이나 불편을 느끼기 때문이다.

< 보 기 >

- ㄱ. 갑: 보편화 가능한 준칙에 맞는 모든 행위는 도덕적이다.
- ㄴ. 갑: 도덕 법칙은 자율적 인간에게 의무로 부과될 수 없다.
- ㄷ. 을: 선과 악은 감정으로 구별되지만 객관적 실재는 아니다.
- ㄹ. 갑과 을: 이성과 감정은 모두 도덕적 행위에 기여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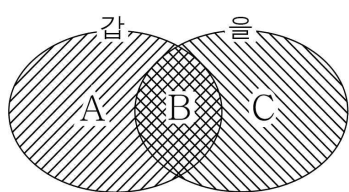
- ① ㄱ, ㄴ    ② ㄱ, ㄷ    ③ ㄴ, ㄷ    ④ ㄴ, ㄹ    ⑤ ㄷ, ㄹ

8. 고대 서양 사상가 갑, 중세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갑: 자연법은 명령을 통해 의무를 부여하고 금지를 통해 악을 피하게 하는 올바른 이성이다. 인간과 신의 최초 결속은 인간과 신에게 존재하는 이성의 토대에서 이루어진다.  
 을: 자연법은 영원법에 대한 이성적 피조물의 참여이다. 이성적 피조물은 영원한 이성을 분유(分有)하고 이를 통해 마땅한 행동과 목적을 향한 자연적 성향을 갖는다.

- ① 갑: 마음의 평온함을 위해 비이성적 정념에도 순응해야 한다.
- ② 갑: 세계 시민으로서의 삶에서 벗어나 자연에 은둔해야 한다.
- ③ 을: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려면 자연적 성향을 배제해야 한다.
- ④ 을: 인간은 신앙을 갖지 않아도 자연적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.
- ⑤ 갑과 을: 참된 행복은 이성애 따른 삶만으로도 성취될 수 있다.

9. (가)의 고대 동양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을 (나) 그림으로 표현할 때, A ~ C에 해당하는 옳은 진술만을 <보기>에서 고른 것은? [3점]

(가)	갑: 대인(大人)은 사람을 해치지 않지만 어둠[仁]과 은혜[恩]를 소중히 여기지도 않는다. 옳고 그름도, 크고 작음도 분별할 수 없음을 알고 있으므로 명성이 들리지 않고 덕으로 칭송될 수 없다. 을: 사람은 나면서부터 모두 소인(小人)이므로, 스승이 없고 예법이 없다면 오직 사사로운 이익밖에는 보지 못한다. 따라서 수양을 거듭하여 본성을 변화시킨 뒤에야 덕을 완성할 수 있다.
(나)	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left: 20px;">                     &lt;범례&gt;                      A: 갑만의 입장                      B: 갑, 을의 공통 입장                      C: 을만의 입장                 </div>

< 보 기 >

- ㄱ. A: 인의(仁義)는 사회 혼란의 발생 원인이다.
- ㄴ. B: 예(禮)는 인위적으로 제정된 사회 규범이다.
- ㄷ. C: 성인(聖人)이 되기 위한 수양법이 존재한다.
- ㄹ. C: 사욕을 극복하고 타고난 덕을 회복해야 한다.

- ① ㄱ, ㄴ    ② ㄱ, ㄷ    ③ ㄴ, ㄷ    ④ ㄴ, ㄹ    ⑤ ㄷ, ㄹ

10.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. 학생 답안의 ㉠ ~ ㉡ 중 옳지 않은 것은?

서술형 평가

● 문제 : 한국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십시오.

갑: 서학(西學)보다 사람의 마음을 심하게 해치는 이단(異端)은 없다. 서양 오랑캐보다 국가에 재앙을 심하게 주는 오랑캐는 없다.  
 을: 양학(洋學)은 우리의 도(道)와 같은 듯하나 다르다.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르게 하여 한울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조화가 저절로 이루어진다.

● 학생 답안

갑, 을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, 갑은 ㉠ 성리학적 신분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보았고, ㉡ 백성의 이익을 위해 서양의 과학 기술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. 이에 비해 을은 ㉢ 남녀뿐만 아니라 노소(老少)의 차별도 철폐해야 한다고 보았고, ㉣ 백성을 이롭게 하는 후천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. 한편 갑, 을은 모두 ㉤ 참된 도로써 국난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.

- ① ㉠    ② ㉡    ③ ㉢    ④ ㉣    ⑤ ㉤

11.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[3점]

감정과 행위에 있어서 악덕은 한편으로는 마땅히 있어야 할 것에 모자라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나친 반면, 탁월성은 중간을 발견하고 선택한다. 탁월성은 본질을 말하는 정의(定義)를 따르자면 중용이지만, 최선의 것과 잘 해냄의 관점을 따르자면 극단이다.

- ① 이성을 발휘하면 덕과 악덕 사이의 중용을 발견할 수 있다.
- ② 용기는 항상 무모함과 비겁함의 양극단 사이에 있는 덕이다.
- ③ 이론적 학습과 탐구만으로는 어떠한 탁월성도 갖출 수 없다.
- ④ 선에 대한 앎을 갖춘 사람은 자발적으로 악을 행할 수 없다.
- ⑤ 모든 행위는 모자람과 지나침이라는 두 악덕의 상태를 갖는다.

12. 현대 서양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?

갑: 불안은 자유의 가능성이다. 이것이나 저것이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능성은 불안으로 개인을 압도하지만, 개인은 신앙을 결단함으로써 불안을 극복할 수 있다. 불안은 신앙에 의해 구원의 징검다리가 된다.  
 을: 불안은 자유와 책임을 의식할 때 느껴진다. 자유롭도록 선고받은 인간은 자신을 선택함과 동시에 인류 전체를 선택하는 입법자이며, 결코 자신의 깊은 책임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.

- ① 갑: 윤리적 삶을 사는 것만으로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.
- ② 갑: 실존적 상황에서 신과 하나가 되어도 절망에 이를 수 있다.
- ③ 을: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.
- ④ 을: 이성적 사유를 통해 자신의 타고난 본질을 깨달아야 한다.
- ⑤ 갑과 을: 객관적 진리에 의존하여 모든 불안을 극복해야 한다.

13. 그림은 고대 서양 사상가 갑, 을의 가상 대화이다. 갑,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<보기>에서 고른 것은?



< 보 기 >  
 ㄱ. 갑: 사물의 가치는 각자에게 각자의 경험에 의해 결정된다.  
 ㄴ. 을: 절대적 진리는 존재하지만 인간은 인식할 수 없다.  
 ㄷ. 을: 덕을 아는 사람은 곧 유덕하고 행복한 사람이다.  
 ㄹ. 갑과 을: 인간과 사회는 진리 탐구의 대상이 아니다.

- ① ㄱ, ㄴ    ② ㄱ, ㄷ    ③ ㄴ, ㄷ    ④ ㄴ, ㄹ    ⑤ ㄷ, ㄹ

14. 중국 유교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<보기>에서 고른 것은? [3점]

갑: 이(理)는 오직 하나일 뿐이다. 도리는 같은데 직분이 다르기 때문에 군신에게는 인(仁)과 경(敬)의 이가 있고, 부자(父子)에게는 자(慈)와 효(孝)의 이가 있다. 모든 사물도 이를 갖는데 그 적용은 서로 다르다.  
 을: 이는 마음의 조리(條理)이다. 이가 임금에게 발현되면 충(忠)이 되고, 부모에게 발현되면 효가 된다. 나의 마음에서 발현되지 않는 것이 없으니, 세상에 어찌 마음 밖의 일이 존재하고 마음 밖의 이가 존재하겠는가.

< 보 기 >  
 ㄱ. 갑: 사물의 이치를 탐구해야 마음속 앎[知]이 확충된다.  
 ㄴ. 을: 양지를 사물에 실현하면 사물은 이치를 얻게 된다.  
 ㄷ. 을: 효를 행하려면 먼저 효의 이치를 배우고 익혀야 한다.  
 ㄹ. 갑과 을: 격물은 마음의 바르지 못함을 바로잡는 것이다.

- ① ㄱ, ㄴ    ② ㄱ, ㄷ    ③ ㄴ, ㄷ    ④ ㄴ, ㄹ    ⑤ ㄷ, ㄹ

15. (가)의 한국 사상가 갑, 을,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(나) 그림으로 표현할 때, A~E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[3점]

(가)

갑: 하늘의 달은 진짜 달이고 물속의 달은 그림자일 뿐이다. 성(性)이 기(氣) 가운데 있는 것은 물속의 달과 같으니, 기를 겸하여 말하고자 한다면 이미 성의 본연이 아니다.  
 을: 그릇이 움직일 때 물이 움직이는 것은 기가 발할 때 이(理)가 타는 것이다. 그러나 물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이는 무위(無爲)이며 기는 유위(有爲)인 것과 같다.  
 병: 벌이 여왕벌을 호위하는 것을 충(忠)이라 하지 않는다. 벌은 정해진 마음[定心]을 따랐을 뿐이기 때문이다. 반면 사람은 자주지권(自主之權)을 부여받아 선을 행하고자 하면 선을 행할 수 있다.

(나)

- ① A: 인(仁)은 기질이 섞이지 않은 이(理) 자체임을 간과한다.
- ② B: 인은 그 주된 바[所主]가 기에 있는 정(情)임을 간과한다.
- ③ C: 인은 마음에 있는 성이 아니라 마음의 기호임을 간과한다.
- ④ D: 인은 인간의 기질지성에 포함되어 있는 덕임을 간과한다.
- ⑤ E: 인은 자주지권의 발휘를 가능하게 하는 근본임을 간과한다.

16. 고대 동양 사상가 갑, 현대 사회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?

갑: 대국이 소국을 공격하고 강자가 약자를 강탈하는 것은 천하의 큰 해악이다. 이러한 해악의 근원은 차별하여 서로 미워하는 것에 있다. 서로 사랑하고 이익을 나누는 것 [兼相愛 交相利]으로 서로 미워하는 것을 대신해야 한다.  
 을: 부국과 빈국 사이의 무역은 한쪽이 다른 쪽보다 훨씬 더 많이 갖는 착취로 표현할 수 있다. 착취는 일종의 구조적 폭력이고 직접적 폭력으로 이어지며 주류 이론이 떠받치는 문화적 폭력에 의해 유지된다.

- ① 갑: 자국 백성의 이익을 위한 침략 전쟁은 의로운 전쟁이다.
- ② 갑: 사랑은 친소(親疏)에 따라 분별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.
- ③ 을: 문화적 폭력은 국가 간 경제적 착취를 정당화할 수 있다.
- ④ 을: 모든 폭력은 구조적 폭력에서 비롯되며 무한히 재생산된다.
- ⑤ 갑과 을: 약소국을 보호하기 위한 무력 사용은 항상 허용된다.

17.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?

계(戒)를 닦아 선정[定]을 얻고 선정을 닦아 지혜[慧]를 얻어 해탈하면 탐욕이라는 번뇌, 존재에 대한 번뇌, 진리를 알지 못해 생겨난 번뇌가 없어지게 된다. 해탈을 얻어 청정한 행[梵行]이 확고해지면 다시는 다음 생(生)을 받지 않는다.

- ① 중생이 겪는 고통은 원인과 조건 없이도 생겨나는가?
- ② 중생이 번뇌를 끊고 해탈하면 더 좋은 생으로 윤회하는가?
- ③ 중생의 자아가 불변의 실체임을 아는 것이 곧 깨달음인가?
- ④ 중생의 삶은 본래 고통이 아님을 지혜로써 파악해야 하는가?
- ⑤ 중생은 연기법에 따라 오온이 잠시 모였다 흩어지는 존재인가?

18.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 [3점]

인간이 사물을 실재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. 하나는 사물을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관련지어 파악하는 것이고, 다른 하나는 사물을 신 안에 있고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서 발생한다고 파악하는 것이다. 후자의 방식으로 우리의 정신과 신체를 파악하면 필연적으로 신을 인식하게 되며, 정신이 신 안에 있고 신에 의해 인식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.

< 보 기 >  
 ㄱ. 신 없이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고 인식될 수 없다.  
 ㄴ. 신은 무한 양태이며 모든 유한 양태의 내재적 원인이다.  
 ㄷ. 정신은 신체와 달리 자연의 인과 법칙으로부터 자유롭다.

- ① ㄱ      ② ㄴ      ③ ㄱ, ㄴ      ④ ㄱ, ㄷ      ⑤ ㄴ, ㄷ

19. (가)의 사회사상가 갑, 을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(나) 그림으로 표현할 때, A,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[3점]

(가)	<p>갑: 주권자의 직무는 인민의 안전을 획득하는 것이다. 안전이란 생명의 보존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신의(信義) 계약을 통해 세운 하나의 인격인 리바이어던에서 누리는 생활상의 만족이다.</p> <p>을: 주권은 양도가 불가능한 것과 같은 이유로 분할될 수 없다. 의지는 일반적이거나 일반적이지 않거나 둘 중 하나이다. 일반 의지는 선포되어 주권 행위가 되며 법을 만든다.</p>
(나)	

- ① A: 주권자는 스스로에 의해서만 대표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.
- ② A: 주권자의 권력은 인민에 의해 철회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.
- ③ B: 주권자는 법을 제정할 권리를 보유할 수 없음을 간과한다.
- ④ B: 주권자에게는 사회 계약 준수의 의무가 없음을 간과한다.
- ⑤ B: 주권은 사회 계약의 당사자인 인민에게 있음을 간과한다.

20. (가), (나)는 사회사상이다. (가)의 입장에 비해 (나)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㉠~㉥ 중에서 고른 것은?

(가) 정치권력은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압하기 위해 조직한 힘이다.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부르주아 계급에 대항하는 혁명을 통해 낡은 생산관계와 계급이 소멸되면, 결국 공권력은 정치적 성격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.

(나) 정치권력이 한곳으로 집중되면 그 권력은 노예제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의 종속 상태를 만들어 낸다. 경제적 자유주의가 추구하는 경쟁 체제는 권력의 분권화를 통해 한 사람의 권력을 최소화하는 유일한 체제이다.

- ① ㉠      ② ㉡      ③ ㉢      ④ ㉣      ⑤ ㉤

\* 확인 사항  
 ○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(표기)했는지 확인하십시오.